

광역교통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

(정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1
----------	------

발의년월일 : 2013. 12. 4.

발 의 자 : 김동규·김동수·김정택·김철진·
나정숙·박영근·성준모·송두영·신성철·윤미라·
윤태천·이민근·이형근·전준호·정승현·정진교·
한갑수·함영미·황효진 의원(19인)

□ 주 문

- 시화 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안에 따르면 2009년 9월 신설해안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통정체와 물류비용의 증가가 예상됨에 향후 시화MTV 준공 전 합리적인 광역교통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제안이유

-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2004년 12월 신설해안도로 및 주요 연결로 건설계획이 심의 확정된 후 우리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설해안도로 노선을 송산그린시티 해안 노선으로 변경 또는 국도 39호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 송산그린시티 쪽 해안 노선의 사업계획은 경기도의 '노선변경 타당하지 않음'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항'임을 이유로 변경불가 통보를 받았음.
- 이후 2009년 2월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재차 신설해안도로 노선을 송산그린시티와 연계하여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9년 8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파행과 푸르지오7차, 9차 집단민원이 제출됨에 따라서 우리

시 자체 용역을 건설과에서 실시하여 신설해안도로를 미건설하고
해안로의 기능을 개선하는 대안을 도출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
업변경 요청을 2010년 7월 제출하였음.

- 2012년 2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 2012년
9월 MTV단지에서 매송IC구간 신설해안도로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정체 및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MTV 조성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결의안 : 덧붙임

광역교통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4년 2월 시화MTV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보면 사전 협의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설해안도로 노선에 대한 사전협의를 화물전용도로 노선 조정, 해안로 확장 및 조기시행, 서안산IC~공단간 도로 용량 확보방안 및 접속시설의 지하구조 개선과 공단역 환승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2004년 12월 시화MTV 광역교통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신설해안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심의·확정 되었다.

이후 신설해안도로 옆으로 푸르지오 6차, 7차 및 9차가 준공으로 차례로 입주를 하면서 동 주민들의 2007년 신설해안도로 건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산시에서는 화성시 77번 국도로 연결하여 다시 신설해안도를 매송I.C까지 연계하는 방안과 지하차도와 방음터널 등 많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변경(안)을 2010년 10월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하지만 2011년 6월 신설해안도로 축소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안산시에서 2004년도부터 제시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수자원 공사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방향으로 우회하는 방안에 대하여 화성 시의 반대로 무산되었음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후 수공은 송산그린시티를 건설하면서 77번 국도를 안산시와 연계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한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여 시화 MTV와 반월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면서 제시한 송산그린시티와 90블럭구간을 연결하는 6차선 교량을 설치하고 90 블럭부터 매송I.C까지 신설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광역교통개선 개선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 의한다.

2013. 12. 1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